

음악 프로듀서로 변신한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

“프로듀서 시스템의 장점은 새로운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충분히 좋은 곡들을 만드는 시대이지만 프로듀싱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면서 자신에게 없었던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는 것. 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렇고요.”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이 음악 프로듀서로 변신했다. ‘더 블랭크 숍(The BLANK Shop)’이라는 활동명을 통해 프로듀서로 활약한다. 지난 17일에 발매한 첫 정규앨범 ‘테일러(Tailor)’가 신호탄이다.

더 블랭크 숍은 앨범 발매에 앞서 소속사 안테나뮤직을 통한 서면 인터뷰에서 “재즈 연주 음악 말고도 하고 싶은 음악들이 많다”며 프로듀서명 ‘더 블랭크 숍’을 새롭게 지은 이유를 밝혔다.

윤석철 트리오로 재즈계에서 유명한 그는 연주자와 프로듀서를 “서로 구분을 지어서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듣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트리오 앨범을 만드는 것과는 많이 달라서 작업 중에 꽤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게 만들었는데요. 요즘 다들 헛되실 텐데 이 앨범으로 조금이나마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블랭크 숍은 무엇이든 대입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 ‘블랭크(BLANK)’처럼 아티스트 맞춤형의 폭넓은 음악들을 선보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14곡이 실린 이번 앨범

활동명 ‘더 블랭크 숍(The BLANK Shop)’

‘안테나’ 유희열 대표가 영입한 뮤지션

첫 정규앨범 ‘테일러(Tailor)’... ‘신호탄’

밴드 ‘데이식스’ 원필·백예린 등 참여

에는 정말 다양한 협업진이 눈길을 끈다. ‘아이돌 명가’ JYP엔터테인먼트의 밴드 ‘데이식스(DAY6)’ 원필과 블루칩 가수 백예린이 각각 가창에 참여한 ‘사랑노래’와 ‘위 아 올 뮤즈(We are all Muse)’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사랑노래”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곡이다. 원필의 음색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위 아 올 뮤즈’는 서로의 거울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감각하며 영감을 주고받는다. 내용의 곡이다. 백예린의 세련된 음색과 감성이 깃가를 사로잡는다.

또한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속으로 주문을 외는 ‘아모네대츠키포네’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응원하는 ‘물러설 곳 없는 사람’은 권정영의 1인 밴드 ‘십센치’(10cm), 세계에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에는 가수 하현진이 목소리를 보냈다.

이 세상의 모든 늦잠꾸러기들을 위한 모닝콜 ‘계으른 아침들’, 윤석철이 작·편곡은 물론 직접 피아노와 신시사이저를 연주한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kick 더 라디오(Kick The Radio)(Feat. 가데호), ‘합주 중

도 담겼다.

특히 이진아가 피쳐링한 곡으로 랜선 속에서 재즈 트리오의 연주를 듣고 감동받은 데이터의 마음을 표현한 ‘랜선탈출’, 유쾌하고 개성 넘치는 ‘웃장에 고풍’, 나른한 분위기의 ‘하품하게 되는 노래’, 숫자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게 하는 ‘500,000’, 감성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으로 인디 싱어송라이터 안영하신기영이 노래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눈길을 끈다.

이처럼 뮤지션이 다양함에도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기준이 있을까. 더 블랭크 숍은 “거의 모든 곡들은 해당 아티스트를 염두하고 만들었다”고 전했다.

“다들 친분이 조금씩 있는 분들이고 실제로 같이 작업도 하고 공연도 했던 분들이라 그들의 고유의 스타일과 음악의 취향,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현진은 블루스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거기에 저의 피아노 코드 진행이 합쳐지면 굉장히 신선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진아는 재즈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8bit 게임에서 쓰이는 원초적인 신시사이저 소리로 swing 곡을 만들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사를 뜻하는 앨범명 ‘테일러(Tailor)’가 수공이 간다. 여러 아티스트에게 꼭 맞는 음악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옷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 앨범을 기획했습니다. 거의 모든 곡들은 처음부터 보컬 분들을 정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팬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가수의 이미지, 그분들의 음악 스타일,

나의 색깔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밸런스가 맞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콘셉트가 잡히면 나머지 작업은 꽤 수월했습니다.”

안테나에서 박재별 이후 11년 만에 K팝스타를 거치지 않고 영입한 뮤지션이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유희열 대표가 큰 결심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안테나와 계약을 체결했다. “식구가 된 지 1년6개월이 됐는데 벌써 두 장의 앨범을 여기서 발표했네요. 안테나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할 일을 열심히 할 예정인데요. 그게 앞으로 안테나에 도움이 되는 일이길 바랍니다.”

한편 ‘윤석철 트리오’는 윤석철 외에 정상이(베이스), 김영진(드럼)으로 구성됐다. 활기 넘치는 그루브, 일렁이는 감성으로 마니아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09년 문체부 올해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유기적이고 실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재즈 외에도 자이언티, 퀸진아, 샘김, 백예린, 폴킴 등의 뮤지션과도 작업을 해왔다.

“재즈가 아닌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접할 때 아슬아슬 의욕 타기 한다는 기분을 많이 갖습니다. 연주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뭔가 걸릴까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의 뮤지션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새로운 음악도 많이 듣고 특유의 문화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의 쾌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최예진, 윤지영, 겨울에서 봄, 쿠인, 정영영밴드의 음악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더 블랭크 숍의 활동 계획과 목표에 대해 묻자 “아직 상상을 하는 단계”라는 그는 “천천히 필요한 것들을 공부한다든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들, 환경에서 또 열심히 연주하고 곡 쓸 것”이라고 말했다.

‘검객’ 장혁 “대역 안쓰고 온 몸 검처럼 사용했다”

검투 액션영화...23일 개봉



배우 장혁이 액션 영화 ‘검객’으로 돌아온다. 조선 최고의 검객 ‘태울’로 색다른 검투 액션을 선보인다.

17일 영화 ‘검객’ 온라인 간담회가 열렸다. 장혁과 김현수, 최재훈 감독이 참석했다.

영화는 광혜군 폐위 후, 세상을 등

진 조선 최고의 검객 ‘태울’(장혁)이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다시 칼을 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명과 청의 대립으로 혼돈에 빠진 조선을 배경으로 청나라 황족 ‘구루타이(조타슬림)’와 그의 검객 무리는 태울의 딸 ‘태옥(김현수)’을 납치하면서 ‘태울’의 거침없는 추적이 시작된다.

소중한 것을 빼앗긴 주인공이 복수를 다짐하는 단순하고 익숙한 플롯이지만 통쾌한 액션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장혁은 분노와 함께 깨어난 검객의 본능으로 오로지 딸을 구하기 위해 적들을 추격하고 무자비하게 베어버린다. ‘태울’은 물론 조선 최고의 검객 ‘태울’을 쫓는 조선과 청나라의 실력자들까지 당대 최고 검객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과 대결이 이어지며 긴장감을 유발한다.

모든 액션 장면에 사실성을 더해 쾌감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는 최 감독은 “무조건 직접 해야 한다. 대역은 못 쓴다가 일종의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술은 주먹으로 하는 액션보다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3배 정도는

빨라야 속도감을 낼 수 있다”며 “장혁과 무술집은 캐릭터에 맞는 전혀 새로운 액션 스타일을 창조했는데 액션 신 켈리라는 관창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장혁은 이번 검투 액션에 대해 “무술집과 전체적인 액션 콘셉트를 고민해 합을 맞췄고, 기존 사극 액션에서 보지 못했던 실전 전술 무술 바탕의 동작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이 주는 날카로움이 있어 눈빛 프즈가 일반 액션하고는 달랐다”며 “단순히 검을 쓴다기보다 온몸을 활용하면서 검을 사용해서 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장혁에 대해 이상하 무술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액션 소화 능력이 뛰어난 배우로 무술 감독만큼 액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며 “상대를 배려하고 맞춰줄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며 장혁이 있었기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젊은 태울은 그들 비투비 이민혁이 연기했다. 그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부상 위험을 감수하며 직접 리얼한 검술 액션을 소화했다.

김명민, 2년만에 안방극장 컴백...‘로스쿨’ 캐스팅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류혜영·김범·이정은도 출연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JTBC 새 드라마 ‘로스쿨’에 배우 김명민과 류혜영, 김범, 이정은이 캐스팅됐다.

17일 ‘로스쿨’ 측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국내 최고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극이다.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정의를 깨닫는 과정도 담는다.

김명민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 출신 형법 교수 양종훈 역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 컴백을 알린다. 독설이 기본인 직설화법으로 학생들에게 기피 1호 대상인 교수다.

류혜영은 차상위계층 특별 전형 톱걸이로 로스쿨에 입학한 1학년 강수를, 김범은 1학년 수석 한준휘를 연기한다.

이정은은 판사 출신 민법 교수이자 로스쿨 무료 법률자문 기관 리걸클리닉 센터장 ‘김은숙’으로 분한다.

탈 권위적 상황에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법정에서는 조정의 달인으로, 로스쿨에서는 소통과 교감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제작진은 “로스쿨’은 국내 최초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 법정극과 캠퍼스극의 절묘한 조합을 선보인다”며 “신선한 소재가 선사하는 재미와 예비 법조인들의 감동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와이스, 日 베스트 오리콘 차트 1위

‘11연속 플래티넘’ 대기록

그룹 ‘트와이스’의 일본 베스트 앨범 ‘#TWICE3’(해시태그트와이스3)가 현지 음반 차트를 강타했다.

17일 소속사 JYP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16일 일본에서 발매한 베스트 3집 ‘#TWICE3’는 6만 7808포인트를 기록, 15일자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또 같은 날 기준 현지 최대 레코드 스텝인 타워 레코드의 일간 세일

즈 차트에서도 최정상에 올라, K팝 대표 걸그룹다운 위상을 자랑했다.

앞서 지난 2일 선공개한 신보 수록곡 ‘스틱 인 마이 헤드’ 일본어 버전이 라인 뮤직 주간 톱 100 차트(9월 2일~8일)에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정식 발매 직후 이 같은 성과를 거두며 굳건한 해외 인기를 재 입증했다.

이번 음반은 2018년 발매된 ‘올해 제일 잘한 일부터 뎀시’, ‘필 스페셜’, ‘모어 앤드 모어’ 등 큰 사랑을

받은 곡들의 일부어, 한국어 버전이 담겼다. 특히 월드투어 ‘트와이스 월드투어 2019 - 트와이스라이츠’의 오프닝 곡 ‘스틱 인 마이 헤드’와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해 팬들에 대한 애뜻함을 드러낸 수록곡 ‘21:29’이 수록됐다.

트와이스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매했던 10장의 음반이 모두 25만 장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 현지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받았다.

배수지 X 남주혁, ‘스타트업’ 내달 17일 첫 방송

배수지와 남주혁 주연의 ‘스타트업’이 다음달 첫 방송일을 확정했다.

17일 tvN 새 토일드라마 ‘스타트업’ 측은 오는 10월17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샌드박스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START)과 성장(UP)을 그린 드라마다. 배수지, 남주혁, 김선호, 강한나 등이 출연한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에는 체크무늬 셔츠에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한 남도산(남주혁)의 모습이 담겨있다. 집에서는 빨데 안경을 끼고 본격적

인 코딩 작업에 돌입, 커피와 컴퓨터 등 밤샘 흔적들을 책상 한구석에 쌓아둔 채 신나게 노트북을 두드린다.

그러나 사람들과 눈을 마주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 수학올림피아드 최연소 대상에 빛났던 어린 시절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성적, 투자금만 까먹는 창업 상황이 그의 자존감을 바닥 치게 했다.

지하철 땀뻘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는 취미인 뜨개질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상으로 도피한다. 그런 남도산이 앞으로 어떤 변곡점을 마주하면서 다시 꿈꾸게 될지 궁금증을 불러온다.

